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엄승권*

Y.K 글로벌 대표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교수

국 문 요 약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ICT와 같은 기술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창업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팀 수준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팀창업일 경우 기업의 성과는 개인-팀 역량의 혼합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해왔으나, 이러한 요인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에서 찾는 선행연구가 대부분이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창업기업의 성장은 창업자 특성, 자원, 전략, 산업, 그리고 조직 구조 및 시스템의 함수로 정리된다. 그러나 창업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창업가의 특성인 창업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y)에 초점을 두고, 창업팀의 역량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개인의 특성에 집중해온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창업역량의 영향력을 창업가 개인 수준 및 팀 수준으로 구분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팀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등에서 창업지원사업 운영 시 팀구성이 잘 된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창업가 특성, 팀역량,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의사소통능력, 인지영역, 정서영역, 행동영역, 팀지식, 팀스킬, 팀태도

I. 서론

IT 분야의 기술발전과 인터넷 보급으로 1990년대 들어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국가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부상하였다. 2000년대 초 이러한 경제패러다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정부는 창업을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창출·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본질로 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창업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기업생멸행정통계, 2015년 기준)로 OECD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주요인 중 하나는 창업 후 3~7년 이내에 죽음에 계곡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OECD, 2016). 이와 같은 국내 창업생태계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성공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창업기업 성공 요인 및 실패 요인은 대부분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보유하고 있는 자원,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성

* gwonicom@naver.com

** yun88@kookmin.ac.kr

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해 왔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창업기업의 성장은 창업가 특성, 자원, 전략, 산업, 그리고 조직 구조 및 시스템의 함수로 정리된다. 그러나 창업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람이 기업 활동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창업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티몬스(Jeffrey Timmons)가 제시한 신생 창업기업의 성장동력에 관한 모형에서도 창업팀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만한 창업팀 중점 연구가 부족하므로 향후 연구의 기초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ICT와 같은 기술기반의 산업과 융합을 통한 창업현상이 두드러져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팀 수준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팀창업일 경우 기업의 성과는 개인-팀 역량의 혼합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창업가의 특성인 창업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y)에 초점을 두고, 창업팀의 역량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본다. 개인의 특성에 집중해온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창업역량의 영향력을 창업가 개인 수준 및 팀 수준으로 구분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2.1. 창업자 특성

2.1.1. 성취 욕구

창업자가 창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창업자가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목표의식이라고 했으며(전계식, 2017), 성취 욕구는 가장 자주 언급되고 이용되는 창업자의 특성이고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1.2. 위험 감수 성향

위험 감수 성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예상 진행되는 위험을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성향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개념으로 창업자의 기회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창업자의 창업 의지와 관계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에 대하여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흥미와 관계있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하는 특성(전계식, 2017)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1.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 관계에 있어 원만하게 이야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전계식, 2017).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로 동기부여능력, 자원배분능력, 감독과 설득을 통한 지도 관리 능력이 있다.

2.1.4. 기술적 능력

기술적 능력은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생산하거나 시장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전계식, 2017), 자기분야의 전문적 기술 보유 및 적용 정도, 전문적 기술 정도, 전문화된 기술, 기술적 문제 해결 정도 등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2.2 팀역량

2.2.1. 인지영역

인지영역은 팀 구성원들이 과업 프로세스와 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인지적 개념과 다른 구성원이 가진 지식으로 집단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이 소유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 과업수행에 있어 공유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지적 개념'을 함께 포함한 개념이다.

2.2.2. 정서영역

정서영역은 주어진 수준의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성취할 수 있다는 집단의 공유된 신념 또는 집단적 자신감과 집단 공동 목적의 추구 속에서 함께 감성적 만족을 갖거나 그 집단 내 남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정서적 경향을 말하며, 이는 주어진 수준의 달성을 위해 요구된 활동과정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집단의 공유된 신념(Bandura, 1997)인 집단효능감과 집단내 남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모든 활동의 협력(Festinger, 1950)인 응집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2.3. 행동영역

행동영역은 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팀 내 협력과 상호 리더십의 향상,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능력의 제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말하며, 행동영역의 요소로 협력, 의사결정, 리더십,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6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2.2.4. 팀지식

팀지식은 팀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팀 유효성을 산출해내는데 요건이 되는 원리, 개념, 정보들의 집합으로

서 팀 내 공유되어 있는 지식체 또는 정보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신재호·이찬, 2008).

2.2.5. 팀스킬

팀스킬은 팀이 직면하는 과업 및 사회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집단행동의 수준을 말한다.(신재호·이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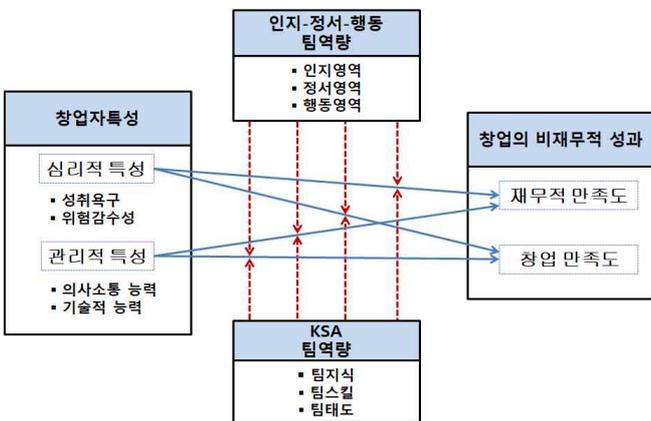
2.2.6. 팀태도

팀태도는 팀이 직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집단 구성원 간의 공유된 심리적 특성들의 집합이다.(신재호·이찬, 2008)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자의 특성을 기본 변수로 설정하고 여기에 창업팀 역량의 조절효과를 통해 창업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창업자의 특성으로 심리적 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성)과 관리적 특성(의사소통 능력, 기술적 능력) 2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비재무적 성과로 재무적 만족도 지표인 매출액상승의 만족도, 순이익 증가에 대한 만족도 및 창업만족도 변수인 고용증가, 신제품 개발 능력 등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 창업자의 특성에 팀역량이 추가되면 창업기업의 성과가 상승할 것이라는 모형을 설정하고 각종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특성, 창업팀 역량, 창업 성과로 구분하여 선행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고, 연구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재무적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창업자의 관리적 특성이 창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기업의 팀역량이 창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인지-정서-행동 팀역량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재무적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인지-정서-행동 팀역량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인지-정서-행동 팀역량은 창업자의 관리적 특성과 재무적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인지-정서-행동 팀역량은 창업자의 관리적 특성과 창업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KSA 팀역량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재무적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6: KSA 팀역량은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7: KSA 팀역량은 창업자의 관리적 특성과 재무적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8: KSA 팀역량은 창업자의 관리적 특성과 창업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실증과정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팀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등에서 창업 지원사업 운영 시 팀구성이 잘 된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곽지은(2009). 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4(2), 18~38.
- 구혜경(2016).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의 패턴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6(1)호, 207-227.
- 권기환·최종인(2015). 기술벤처 실패요인 분석: 연구소 창업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4), 27-37.
- 김서영(2017). 개인 및 팀 수준에서의 대학생 기업가정신 연구: 셀프리더십, 네트워킹행동, 팀 성과와의 관계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길운규·심용호·김서균(2014). 기술창업 성공 요인 도출을 위한 문헌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52-260.
- 박상문(2004).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팀 특성, 기술전략 및 성과 간의 관계,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연구, 7(2), 25-49
- 이혜영·김진수(2017).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 팀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2(2), 31-56.
- 정길호(2017). 창업자역량, 창업팀의 조직문화, 외부협력, 창업 지원 활용이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종면(2012). 팀역량이 팀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larysse, B. and Moray, N.(2004), A process study of entrepreneurial team formation: the case of a research-based spin-off,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1), 55-79.
- Vyakarnam, S., Jacobs, R., & Handelberg J.(1999). Exploring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teams: the key to rapid growth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6(2), 153-165.
- Vyakarnam, S. R.(2012). Creating start team, Centre for Entrepreneurial Learning, University of Cambridge.
- Ahmad, N. H., T. Ramayah, C. Wilson and L. Kummerow(2010). Is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business success relationship contingent upon business environment? A study of Malaysian SM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3), 182-203.
- Lechler, T.(2001). Social interaction: A determinant of entrepreneurial team venture success, Small Business Economics, 16(4), 263-278.